

충남지역 워킹맘 실태와 진단

여성 고용과 관련된 알파벳의 비밀!?

‘워킹맘(working-mom)이 적은 나라 한국’

20세기 후반 이후 급속도로 신장되기 시작한 여성의 학력 수준과 노동시장참여로 인해, 일하는 여성의 모습은 더 이상 낡은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워킹맘, 슈퍼맘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뉘앙스에는 일하는 엄마의 고단함과 특별함이 여전히 묻어있다. 본고에서는 일하는 여성은 많지만, 일하는 엄마는 적은 한국 사회의 단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힘들게 양성한 양질의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고 여기는 전통적 문화가 강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한국의 워킹맘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시기인 25세~39세 사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알파벳 M과 같다하여, M-curve라 한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모든 연령에서 큰 변화가 없는 종모양의 역U자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안 돌아오는 것인가? vs 못 돌아오는 것인가?’

한편, 이러한 경력단절은 고학력 여성에게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저학력 여성에 비해 고학력 여성들은 노동시장 복귀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의 고용률을 생애주기에 따라 그려보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한번 낮아진 후 다시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며, 이때 그래프의 모양이 마치 알파벳 L과 같다하여, L-curve라 한다. 그렇다면, 저학력 여성에 비해

고학력 여성들의 고용률 회복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고학력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까? 가구 소득이 높은 이들은 노동시장참여보다는 자녀 양육에 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일까? 무엇이 더 중요한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노동시장 복귀를 생각하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들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국 평균보다 충남의 ‘워킹맘’이 많은 이유는? 그들은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및 인접 지역에 비해 워킹맘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남 지역의 워킹맘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이유는 고졸 이하 학력자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대졸이상 학력을 지닌 기혼 여성의 고용률 자체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 자체가 낮아 대졸이상 워킹맘이 적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워킹맘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직장은 공공 서비스업 분야로, 충남 지역도 공공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워킹맘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지역 워킹맘들은 전국 평균 대비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높고 관리직/전문가/사무직 종사자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 워킹맘 비중을 높인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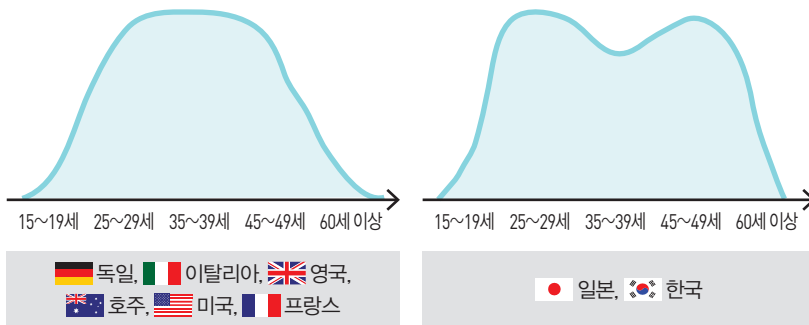
짧게 요약하자면, 충남 지역의 경우 일하는 엄마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많긴 하나, 이는 일-가정 양립이 비교적 용이한 농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적 특색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 _ 한국노동연구원 최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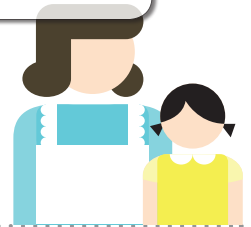
충남의 워킹맘 실태를 진단합니다

★워킹맘(Working-mom)이 적은 나라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OECD 통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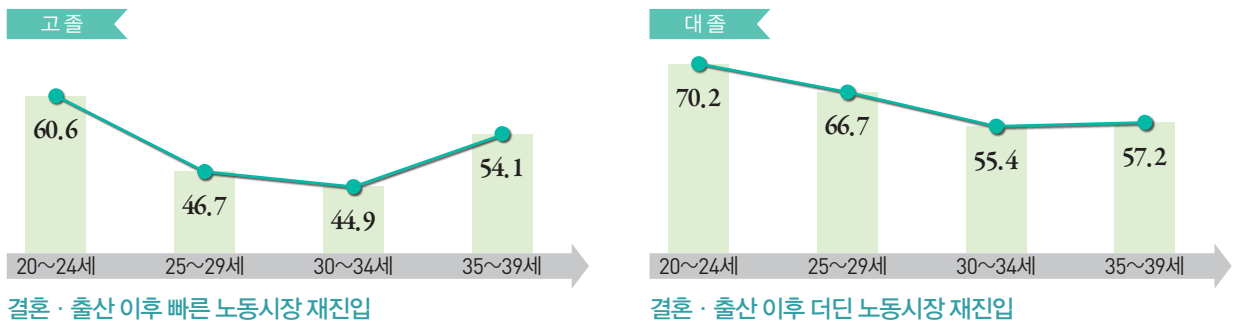


결혼·출산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모습(M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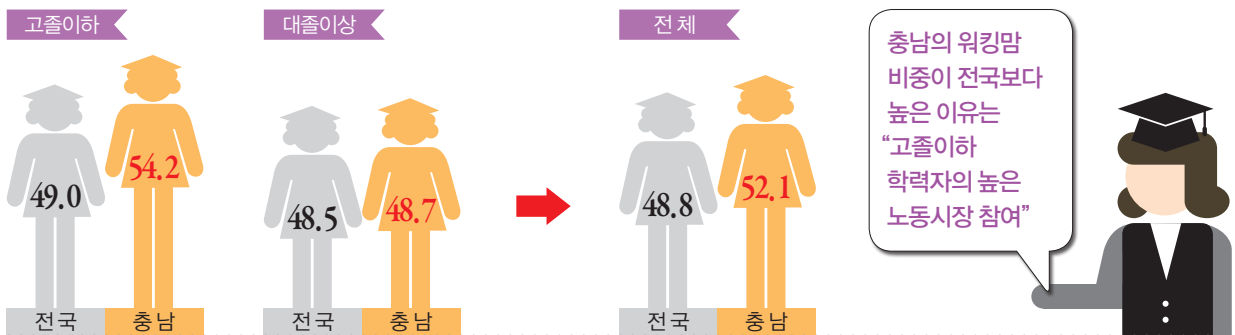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학력별 생애 고용률 변화(1971년생~1975년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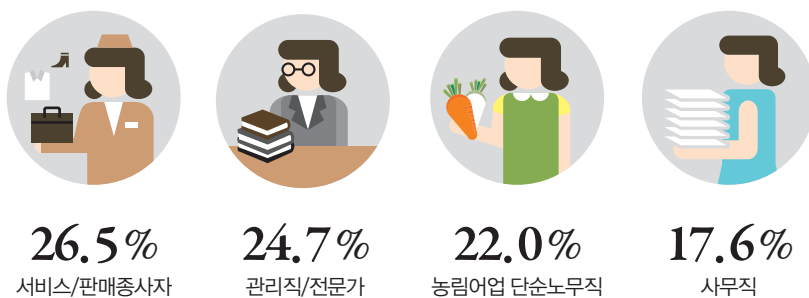


★전국보다 높은 충남의 워킹맘 비중 (%)

※통계청, 『인구센서스 2010, 2%표본』 원자료



★충남의 워킹맘, 무슨일을 할까? (직종별)



전국보다 사무직 비중 ↓
농림어업/
단순노무종사직 비중 ↑

